

2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2.78 (-88.97)	743.96 (-26.89)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566 (-0.026)	1460.00 (+17.00)

여야
조기 대선 레이스
불 붙는다
06



“월세 부담에 버티는 것도 한계”... 자영업 폐업 속출

Q & A ‘불황기’ 상권 둘러보니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까지 연달 연초 특수 사라져 타격
명동·홍대는 관광객 덕 선전
오프라인은 온라인에 밀려

“그나마 예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졌어요.”

10년간 학원을 운영해 온 A(48)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상가를 나갈 때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상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2030 고객층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점점 더 무거운 부담에 비틀거리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주말 서울 송파구의 상업 지역을 둘러보니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 거리에서는 3개 이상의 상가가 연이어 공실로 남아 있었고, 통임대 현수막이 걸린 건물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내부가 텅 빈 대형 건물에는 ‘병의원·카페·사무실 임대’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명동 거리에 폐업한 가게들과 임대문의가 즐비하다. /손진영 기자 son@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월세는 해마다 오르는데 장사는 안되고,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예전에는 공실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임차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와 술집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과 게임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작년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불황 속에서도 일부 상권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꾸준한 성수, 홍대, 청담 등의 지역은 공실이 적은 편이다. 이 외 지역에서는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홍대·청담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상권의 공실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가로수길과 한남동 상권은 각각 4.9%,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B(20대 후반)씨는 “카페나 음식점은 2030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가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며 “성수, 홍대, 청담 같은 핫플레이스가 아니면 공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명동과 홍대 일부 지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내수 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은 “한국인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한국 손님이 오더라도 대부분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오는 경우”라고 전했다.

쇼핑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세대 K뷰티 브랜드로 불렸던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홀리카홀리카’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품질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등의 단일 브랜드 매장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H&B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샵 ‘다이소’가 대신하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 ‘허

브’로 거듭난 편의점도 순증수를 감췄고, 그 자리를 H&B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샵 ‘다이소’가 대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넥스트레이드 출범... 2주간 10개 종목만 거래

코스피 제일기획 등 5개사
코스닥 YG엔터 등 5개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이끌 주도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14일까지 NXT 거래 종목은 10개 종목이다. 코스피 5개 기업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과 코스닥 5개 기업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영업을 개시한다. /뉴시스

이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제일기획은 꾸준한 실적 성장과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힌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제일기획가이던스는 매출 총이익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 및 영업이익률 증가”라며 “극적인 업황 개선은 요원하나 디지털 및 리테일 중심 대형 영역 확대와 비계열 광고주 개발에 따른 외형성장, 자회사 영업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S-Oil의 실적 성장에도 주목한다. NH투자증권은 올 1분기 S-Oil 영업이익을 3296억원으로 예상했다. 래깅 정제마진 강세와 공식판매가격

(OSP) 하락세여서다. 시장 예상치는 2494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실적과 주주환원이 주가를 이끌 전망이다. 김홍식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주이익환원 규모는 3500억원, 2026년에는 350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며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율이 25%에 달하는 반면 주가 상승폭이 미미해 이에 합당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주력 부문의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 부

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증권은 롯데쇼핑의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8.2% 증가한 5592억원으로 예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실적 전망이 엇갈린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하향과 코오롱글로벌 서초 스포렉스 양수에 따른 순차입금 증가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4만원으로 낮춘다”고 했다.

코스닥 종목으로 YG엔터테인먼트가 눈길을 끈다. YG엔터 주가는 지난해 말 4만5800원에서 지난달 28일 6만3000원으로 올라 올해 들어 두 달간 37.55% 급등했다. 특히 올해는 블랙핑크

크의 월드투어가 예정돼 있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크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블랙핑크가 7월 한국을 시작으로 10개 도시, 13회 공연을 진행하는데 스타디움급 공연이 주를 이룬다”며 “공연당 관객 수가 5만 명대로 (지난 공연보다) 많이 늘어나 콘서트 수익은 물론 MD 매출의 두터운 성장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NXT 출범으로 4일부터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허정문 기자 zekova@

메트로 한줄뉴스



▲ 민주당 “하루빨리 윤 탄핵 심판 이뤄져야... 중도층은 이미 파면”
▲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사회갈등 인식, 6년 만에 최고 /사진뉴시스

▲ 이준석 “국힘과 연대? ‘개혁’ 여부가 판단 기준”
▲ 與 “상속세, 징벌적 과세로 변질... 당장 개정 논의 시작해야”

▲ 與 “취약계층 선물카드”로 ‘25만원 지원금’에 맞불... 민생주도권 잡기 나서
▲ 민주당, 6일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 상속세 이어 감세 추진

‘리더십 공백’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 속도내나

11곳 중 5곳 사퇴하거나 임기 지나
오영주 장관 “빠른인사 진행할 것”
신보중앙회·KVIC, 인선절차 진행
창진원, 1년만에 유종필원장 취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순차적으로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총 11곳 중 5곳의 기관장이 이미 사퇴해 자리가 비어있거나 임기가 끝난 가운데 최근 창업진흥원(창진원) 원장이 1년만에 새로 임명되면서 인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쏠린다.

오영주 중기부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줄어들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인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3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맞물려 있고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까지 치러질 경우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인사를 계속하

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는 게 대표적이다.

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신보중앙회(신보중앙회)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현재 신임 회장과 대표 인선 절차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 지난해 8월 이미 회장 초빙공고를 냈었던 신보중앙회는 지난 2월 또다시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았다. 신보중앙회 회장 자리엔 최근까지 중기부에서 1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인사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끝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훈 회장도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었다.

전임 대표 사임 후 1년 넘게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던 KVIC도 지난달 28일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임기는 역시 3년이다.

창진원은 지난달 27일 유종필 원장이 새로 취임했다. 신임 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임고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은 이들 기관 외에 공영홍소평,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까지 모두 11곳이다.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끝난 5곳

중 3곳이 인선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채워진 셈이다. 공영홍소평은 전임 조성호 대표가 지난해 9월 임기 종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 현재 공석이다.

기보 김중호 이사장은 작년 11월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역임했다.

이들 기관 외에는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이 오는 7월,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이 9월에 각각 3년 임기가 끝난다. 하반기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소진공과 중진공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 등의 개국공신들이 이사장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직전엔 모두 중기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었다.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중기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계속 역임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도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는 직전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비웠다. 정 부회장은 중기부에서 1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내심 차관급 인물이 상근부회장으로 오길 바라는 눈치다. 중기부 출신 중에선 지난해 7월까지 차관을 하다 공직을 떠난 오기웅 전 차관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의중이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의외의 인물이 안살림을 맡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의 경우 김영환 사무총장의 임기가 이달로 끝난다. 김 총장은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장 직전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을 맡았었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은 총장이 4개 본부를 이끌며 총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민주당, 국정협의회 ‘보이콧’… 무산 위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헌법의무 이행 안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박수영, 단식농성 돌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도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

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현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해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글로벌 AI스마트폰 신작대결 ‘관심집중’

‘MWC 2025’ 개막

삼성, AI기능 확대 ‘갤럭시 A 시리즈’
모바일 AI ‘어썸 인텔리전스’ 탑재
화웨이·샤오미 등 中 344개사 참여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포그레스(MWC) 2025’가 막을 올린 가운데 AI(인공지능) 스마트폰 신작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AI 기술의 본격화로 업(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번 MWC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미국 제재로 지난 1월 열린 CES에 불참했던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이 참석함에 따라 새로운 품팩터를 갖춘 전자기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선점한 AI 스마트폰 시장의 격화된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MWC 2025’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융합(Coverage)·연결(Connect)·창조(Create)’이다. 그간 MWC 무선통신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ICT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번 MWC의 관전 포인트는 AI폰 신작 대결이다. 올해는 중국 344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며 규모면에서 스페인, 미국에 이어 3위다. 화웨이는 올해도 전시장 1관을 통째로 빌려 최대 규모인 1200㎡ 부스를 꾸렸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확대 적용한 신규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했다. AI폰 라인업을 확대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추격에도 선두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다. 신제품은 ‘갤럭시 A56 5G’와 ‘갤럭시 A35 5G’ 두 종이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브랜드다. 이 모델에서는 갤럭시 A용



MWC25에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 부스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모바일 AI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탑재해 갤럭시 S25 시리즈의 AI 기반 카메라 기능인 ‘서클 투 서치’를 포함해 ‘편집 제안’, ‘AI 지우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업체들 또한 초박형 폴더블폰, 화면을 2번 접는 트리폴드폰 등의 출격을 예고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한 트리폴드폰 ‘메이트 XT’를 전시할 예정이다. 메이트 XT는 화면이 ‘Z’ 형태로 2번 접히는 것이 특징이다. 기기를 펼쳤을 때 태블릿 PC에 준하는 10.2인치 대화면을 구현하면서 두께는 3.6mm로 얇다. 웨어러블로 선보일 ‘밴드 10’는 전작과 같은 1.4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유지했지만 수면 관리 기능 등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MWC가 열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신제품 출시 기자회견을 열어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의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과 샤오미 하이퍼운영체제(OS) 2가 탑재됐다.

샤오미 15의 글로벌 가격은 1499유로(약 227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보다 가격을 높여 저가폰 이미지를 탈피하려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CU·GS25 등 편의점, 작년 순증수 급감

>> 1면 ‘월세 부담에 버티는…’서 계속

2대 양강 편의점의 경우를 보면, CU는 2022년 932개, 2023년 975개, 2024년 696개로 순증했다. GS25는 2022년 949개, 2023년 942개, 2024년 722개로 양사 모두 지난해 순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2023년 말 6598개 점포에서 지난해 말 6130개로 편의점 점포 절대 수가 감소했다.

의류 매장도 예외는 아니다. 2~3년 전만 해도 가로수길에서 자리를 지키던 여러 개인 의류 매장이 하나둘 사라졌고, ‘임대’ 현수막만 남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대부분 e커머스를 통해 옷을 구매한다”며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젊은 세대는 제조·유통·일괄(SPA)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 개인 의류 매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실이 늘어나고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이청하·안재선 기자 tree6834@

개인사업자 15만명 채무불이행 버는 돈 줄고 빚은 늘어나 '허덕'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장사가 되질 않는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신용불량 및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을 각종 통계가 보여준다.

**고금리 장기화에 설 곳 잃어가
최근 2년새 채무불이행자 146% ↑
대출잔액 켜중... 11조→30.7조**

최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불과 2년 사이 갑절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3031명이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에 10만 선을 넘어섰고 지난해 15만5060명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146%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2년간) 채무 불이행자들의 총 대출잔액도 11조2762억 원에서 30조7248억 원으로 170% 넘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중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특히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만에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이하(-1조9030억 원), 30대(-6조4589억 원), 40대(-12조9124억 원), 50대(-2조6843억 원) 등 다른 나이대에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인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수와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 증가세도 가팔랐다. 지난 1년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보유 대출금액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고령층은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데다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약화의 영향으로 빚을 더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불과 1

년 반(2021년 7월 0.5%→2023년 1월 3.5%) 사이에 3%포인트(p)나 인상됐고,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민간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빚상환 여력은 바닥을 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소비)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2003년 신용불량대란 이래로 소비가 2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기(-5.7%)와 인천(-5.0%)에선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매판매는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줄었는데, 이 같은 3년 연속 감소세는 지난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하순 공개한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는 이들의 경영 지표가 전년(2022년)보다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벌어들인 돈은 감소한 반면 빚은 증가한 것.

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당 연 매출액은 1억9900만 원으로 2022년(2억3400만 원)보다 3500만 원 줄어 들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2500만 원으로 2022년(3100만 원)에 비해 600만 원 줄었다. 이에 반해, 기업체 부채보유 비율은 60.9%로 2022년(59.3%)보다 늘었고 기업체당 부채액도 1억9500만 원으로 2022년(1억8500만 원)보다 1000만 원 늘었다.

소상공인이 꼽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일상 회복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고, 부채 증가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부진 겹치며 경영여건 악화
올해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
당국·은행권, 금융지원 뒷받침**

소비심리는 이후 2024년에도 살아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3사태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월평균 지출 증가 폭(+2.5%)은 2021년 1분기(+1.6%) 이후 15분기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 소비가 작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 연체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25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 7000억 원, 3년간 총 2조 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리를 낮춰주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갚을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명동 상권 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일 최대 12시간 주식거래... KRX 대비 수수료 20~40% ↓

Q&A

대체거래소 NXT

**정규시간 외 프리·애프터마켓 운용
안정성 확보 위해 차입공매도 불허**

4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처음 도입되는 데다 주식매매 거래 체결 방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달라질 주식 거래와 시장 환경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주식 거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외에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

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주식 거래가 용이해진 셈이다. 다만 정확한 시가·종가 산출과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정규장 시작 전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정규장 종료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간은 NXT를 통한 거래는 중단된다.

Q. 대체거래소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A.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출범일부터 NXT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SK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 14개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참여한 뒤

추후 메인마켓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28개사의 위탁거래 점유율은 작년 거래대금 기준 87%에 달한다. 9월부터는 추가로 4개 증권사가 NXT에 합류할 예정이다.

Q. 거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처럼 시장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 지정가로 호가를 내 거래할 수 있다. 또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계기로 양 시장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방식이 추가돼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해졌다.

또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는 KRX의 경우 모든 거래에 0.0023%가 부과된다. NXT는 거래 수수료를 세분화하면서 KRX 대비 20~40%가량 낮췄다. 메이커(Maker·시장 가격)가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는 0.00134%를,

테이커(taker·시장 가격 주문) 거래에는 0.00182%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일가 매매는 테이커호가와 메이커호가 구분이 어려워 평균인 0.00158%를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수수료 인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Q. 시가·종가 기준은 언제, 어떻게 산출되나

A. 기본적인 시가·종가는 KRX 거래가가 기준으로, 기존처럼 정규장 전후 동시호가를 통해 산출된다. 정규장 마감 이후 가격 변화는 다음날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날 프리마켓의 시가는 전날 KRX 증가로 시작한다.

Q. 현재 거래가능한 종목은

A. 출범 2주차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된다.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엔터테인먼트, 컴투스가 포함된다.

이후 110개 종목, 350개 종목, 800개 종목으로 매주 거래 가능 종목이 확대돼 2분기 말까지 유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출범 4주차부터 NXT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3분기 매매체결대상 종목은 6월 말에 안내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은 거래할 수 없으며,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말에 ETF·ETN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Q. 프리·애프터마켓 주가 급변동시 대처 방안은

A.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주요 공시나 뉴스로 인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변동폭은 정규장과 같은 ±30%로, 특정 종목의 거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NXT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다음 날 기업 공시 내용 또는 KRX의 시장조치 등을 확인한 뒤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차입공매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정의선의 '결단'... 해외투자·생산량 확대, 협력강화 집중

HYUNDAI MOTOR GROUP

② 현대차그룹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율 25%'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 아래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인도와 중국 등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강한 도전정신으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관세폭탄에 유연한 대응력 갖춰 美에 약 11조 전략적 투자 단행 HMGMA 구축 등 선제 대응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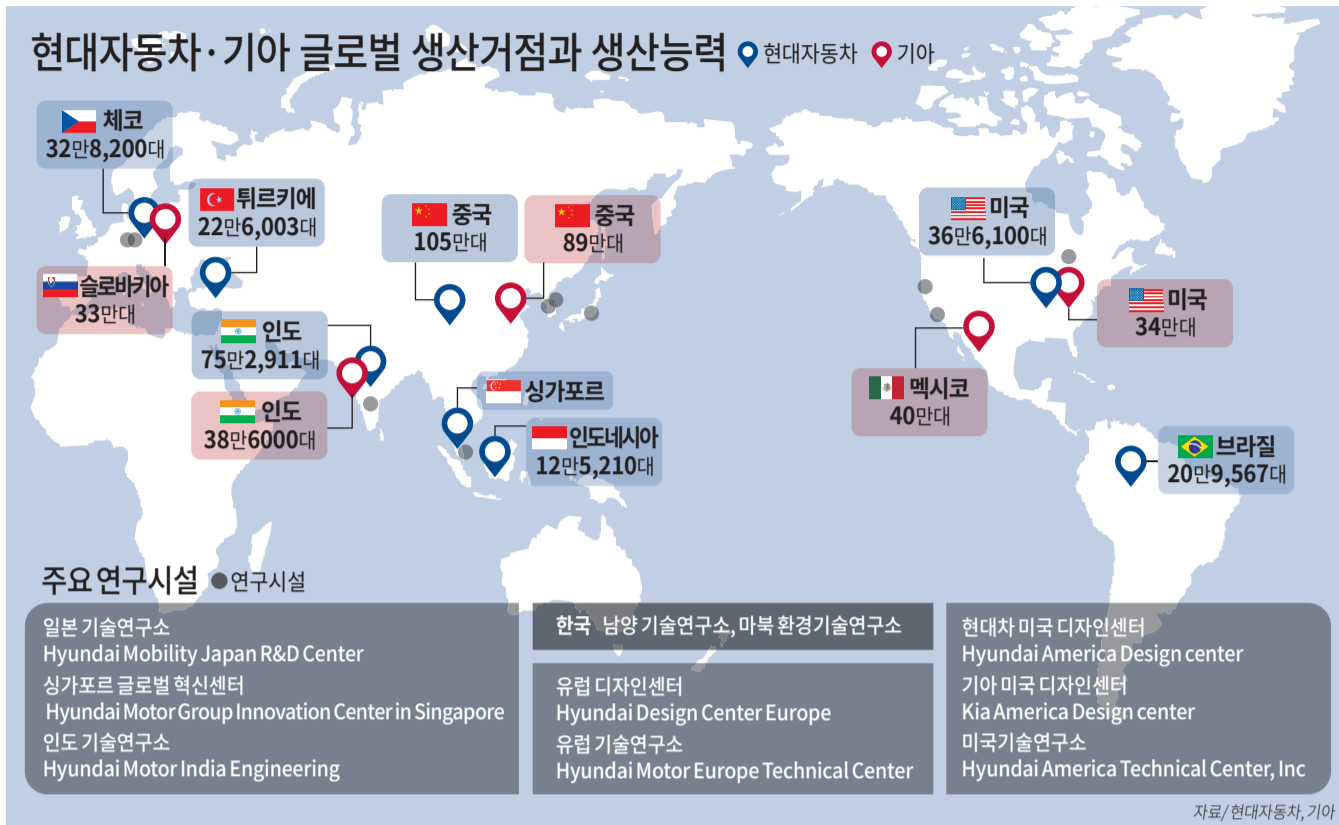
인도법인 통해 상장, 수출허브 육성 中 공장 친환경차 생산 비중 확대 현지 판매, 신흥시장 공략 거점 운영

◆ 글로벌 생산 재편... 위기를 기회로

'품질·특성 경영'으로 대표되었던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2021년 취임한 뒤 '혁신 경영'을 추가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같은 정 회장의 경영 정신은 그룹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지만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현대차그룹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약 171만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 중 절반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이다. 업계는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는 월 2000억~4000억원, 기아는 월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쪽은 기아의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이다. 기아는 몬테레이 공장에서 연 40만여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16만대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일찌감



치 미국에 약 11조원(79억9000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 '신의 한수'로 주목받고 있다. HMGMA는 1183만㎡(약 358만평) 용지에 연간 30만대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기에 정 회장이 메리 베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지난해 9월 만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가 GM의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할 경우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인도 등에서도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첸나이 1·2공장에서 75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인 15만대를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등으로 수출했다. 생산과 수출 모두 국내에 이어 2위다. 기아는 인도 아난티푸르 공장에서 약 39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도를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0월 인도법인을 통해 인도 증시에 상장, 기업 가치를 약 190억 달러(27조4000억원)로 평가받으며 인도 IPO 역사상 최대인 33억 달러(약 4조7000억원)를 조달했다.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상장한 최초 사례이며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실탄을 인도 권역에 집중 투자해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푸네지역에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적용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간) 현대차 체코공장 내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BSA) 공장에서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대모비스

한 현대차 3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차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 공장의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늘려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늘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에서 5개의 공장을 운영했지만 '사드 사태'를 겪으며 판매 부진으로 2개(베이징 2·3공장, 연간 75만대 생산)의 공장만 남은 상태다. 이를 중심으로 생산량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BAIC)와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에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국에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판매량을 40만 대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 물량도 2022년 제로에서 지난해 4만5000여대로 확대한 만큼 수출 시장 확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기아도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공장을 축소했지만 현지 판매는 물론 향후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합종연횡'으로 위기 돌파... 미래 모빌리티 기술 담금질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자율주행 등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리딩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협업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4일 스페인 타라고나의 타라코 아레나에서 열린 'Kia EV Day' 미디어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기아 PBV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목적기반차량(PBV) 사업에 삼성전자의 B2B 고객 맞춤형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양사는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과 배터리 협업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급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시장 선점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까지 자율주행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SDV 시험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양산차에

순차 적용한다. 지난해엔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 올해 초 엔비디아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SDV, 로보틱스 등에서 AI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을 만나서 한일 완성차 업체 간 수소, 로보틱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도요타 산하 연구소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TRI)가 인공지능(AI)기반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양사 간 협력 분위기가 속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선 회장의 '황금 인맥'도 글로벌 시장 경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문의 실세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과 2시간 가량 골프회동을 가졌다. 단순한 친교 활동이 아닌 미래 사업 전략과 직결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북미시장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업... 배터리 공급 SDV 시험차량 개발 프로젝트 마무리 구글, 엔비디아 등 파트너십 체결

핵심 요소기술 확보에 역량 집중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2조 투입 자율주행, 전동화 등 경쟁력 차별화

◆ 핵심기술 주도 '현대모비스'... 미래 경쟁력 확보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질적 성장은 물론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마북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6개 R&D 거점(마북, 의왕, 미국, 독일, 중국, 인도)에서 3000여명의 연구원들이 전동화, 전장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핵심 요소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전동화,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등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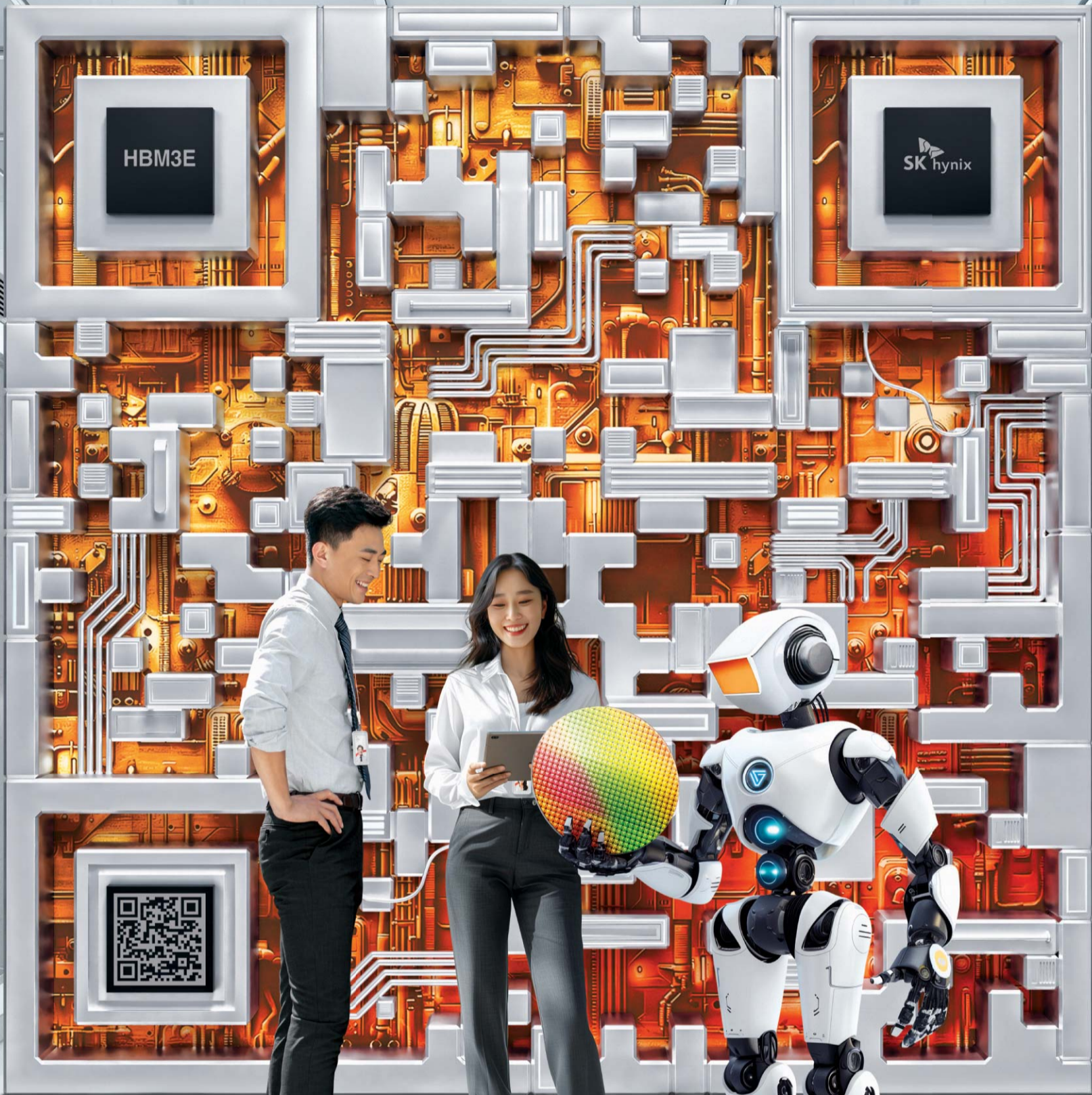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전경



현대차 기아 중국 공장

/기아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한동훈, 저서 출판 등 공식활동 재개... 與 잠룡들 '기지개'

한동훈, 제2연평해전 다룬 공연 관람
안보·개헌 관련 메시지 부각
SNS서 "상속세 정상화해야" 주장
오세훈, 이달 '다시 성장이다' 출간
김문수, 대구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은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묵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

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 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

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선후보 선호도 46.3% '우뚱'... 보수진영 1~3위 합쳐도 '역부족'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합산 32.6%
정권교체 55.1%, 정권연장 39.0%
與 극우지지층 구애에 중도층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차기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또, 정권교체 여론도 과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46.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그 뒤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수진영 대선주자 1~3위인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지지도를 합쳐도 32.6%로, 이재명 대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로 과반에 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는 응답은 39.0%로 집계됐다.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응답의 격차가 16.1%포인트(p)로 크게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2%,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연초에는 극우를 중심으로 결집해 여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져 여론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사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모습과 민주당의 '중도보수 정당' 정체성 언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서 현재 여론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독주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무성

한동훈, 오세훈 등 "임기 3년으로 단축"
권력구조 개편만 반복... 진정성은 글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론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도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김동연 지사도 임기 단축(3년)·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입법부 양원제를, 야권의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권 주자 중 선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헌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개헌론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우선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해 판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대표에 대해 '1등이라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 주자들의 전략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주자들은 같은당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에 가깝다고 여기고 이 대표에게 '임기를 단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여권 주자들의 개헌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할 때 여러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개헌을 언급하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발언만 할 뿐, 현 시대에 맞는 기본권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美관세전쟁’ 비껴간 日… 원엔 환율 2년만에 1000원 근접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100엔당 975.44원까지 올라 원엔 환율 21개월 만에 최고치 엔화 강제 당분간 지속될 듯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내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 때문이다.

엔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만큼, 원·엔 환율이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9.67원(1.00%) 오른 100엔당 975.4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2023년 5월 17일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며, 올해 초 기록했던 934.77원과 비교해서는 40.67원(4.35%) 올랐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원·엔 환율이 올해 들어 상승을 지속하는 가운데, 타 통화 대비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하락(엔화 가치 상승) 중이다. 올해 초 달러당 156.87엔이었던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에는 달러당 150.60엔까지 내렸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24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동반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일본 총무성은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일본은행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라 관측이 빠르게 힘을 얻었다.

일본은행 내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정책 선호) 위원으로 꼽히는 다카타 하지메 정책심의위원은 지난 19일 “실질 금리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완화적인 금융 환경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제와 물가에 대한) 전망이 실현된다면 한 단계 기어를 올릴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는 관측도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지목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주요국 가운데

대(對)미 투자액이 가장 많고, 미국 내 생산 비중도 큰 일본에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원·엔 환율이 상승을 지속해 100엔당 1000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엔화가 10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4월이 마지막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엔화 가치도 점진적이지만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 및 국제 매입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엔화 추가 절상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엔화 가치가 절상될 여지는 크다”라고 분석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에 따른 주요 경제 권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엔화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추가 긴축 기대 반영 속에 일본은행 당국자의 매파적 영향 반영 등이 소폭 엔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사, 자금조달 완화 조짐… 카드론 금리 인하 ‘고개’

여전채 금리 3년 만에 2%대 안착
카드론 잔액 오름세… 대출은 경계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스프레드)가 함께 떨어지면서다. 카드사의 대출길 개방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3년물) 금리는 연 2.98%다. 전년 동기 대비 0.71%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국고채 금리와 여전채 스프레드는 전일 대비 각각 4bp(1bp=0.01%p), 3bp씩 떨어졌다.

여전채 금리가 연 2%대에 안착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카드사는 채권 발



Chat GPT가 생성한 ‘카드론을 취급 여부를 고민하는 카드사 직원’ 이미지.

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앞으로 카드사의 조달 부담이 완화될 조짐이다.

통상 여전채 금리가 낮아지면 카드론 및 자동차할부 등 카드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도 함께 떨어진다. 카

드사가 운용 자금을 3~4개월 전 앞서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차주들이 카드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카드업계 또한 카드론 금리 인하 관측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물론 여전채 금리 하락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각 사별 신용등급 및 자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이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이 취급한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연 14.46%다. 전년 동기(연 14.63%) 대비 0.17%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에게 적용한 평균 금리는 0.18%p 상승하면서 시장 금리 인하 기조에 역행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기

업어음(CB),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여전채 금리만 고려해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여전채 발행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대출길 개방 여부도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건전성 확보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년부터 카드론 잔액이 오름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9곳의 카드론 합산잔액은 42조 7310억원이다. 전월 대비 3437억원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조 5189억원 가량 급증했다.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다.

한편 중저신용차주대출 여건에 긍정

적인 신호도 등장했다. 대한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다.

지난 1월 카드사 9곳의 카드론 대한대출 잔액은 1조 6111억원이다. 연간 1231억원 감소했다. 카드론 대한대출은 중저신용차주가 상환을 앞두고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이다. 카드사가 ‘대출 돌려막기’를 시행하는 취약 차주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 대출 기조를 수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업계가 올해 인사쇄신을 단행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다. 금융상품 운용에 조심스런 행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에선 건전성에 집중해야 했다면 올해 영업은 미래 점유율 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선부터 금융상품 취급 확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전국 미분양 주택 7.2만호… 올해 건설사 최대 악재

악성 미분양 2만 2872호 달해
20개 건설사 미수금 약 35.5조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는 등 미분양이 건설 부동산 시장의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서 한 숨 돌리고 나니 미분양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2451호(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은 7440호로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미분양은 더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6월에 7만 4000호를 기록한 이후 6만

호 안팎으로 안정되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7만호를 넘기며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대비 1392호(6.5%) 증가해 2013년 11월(2만 2227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대손 반영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기업평가는 “작년 9월 말 기준 유효등급을 보유한 20개 건설사의 미수금(공사미수금+미청구공사)은 약 35조 500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2.2% 증가했다”며 “부동산 경기 저하 등에 따른 초기 분양성과 저조와 신규 착공 축소

로 인한 공사수수금 유입 감소 등으로 업계 전반의 운전자본부담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또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비중은 2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수도권 사업장은 프로젝트의 비용 구성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미분양 발생시 지방사업장 대비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된 건설 업황 저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던 분양 물량들이 오히려 손익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수도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양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1월 말 기준 수도권이 1만 9748호로 전월 대비 2751

호(16.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비수도권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이 7만호를 넘긴 상황에서 3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을 공공 재원을 통해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위축된 지방의 수요 심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GI서울보증 보험사기 근절 위해 전담조직 역량 집중

SGI서울보증은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SIU)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출신 전문 조사인력을 SIU팀에 추가 배치하고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90건의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적발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인수심사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까지 업무 전 단계에 걸쳐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철강업계, 中 반덤핑 제소 본격화... 정부 대응방향 이목집중

도금·컬러강판 등 반덤핑 제소 확산
보호무역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
中 보복 가능성... 정부 역할 중요



동국씨엠 부산공장.

/동국씨엠

국내 철강사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속속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이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선 데 이어 최근 동국씨엠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추진했다. 이에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오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예비 조사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

는 6월 중 예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저가 도금·컬러강판의 수입량은 266만7101톤으로 국내 연간 평균 수요인 261만7771톤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76만4053톤이었던 중국산 수입량은 지난해 102만1617톤

으로 33.7%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유통량 대비 중국산 점유율은 28.1%에서 40.8%로 12.7%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은 국산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도금량이 건축법 규정인 m2당 90g에 한참 못 미치는 m2당 60g 수준임에도 대

량 유통되고 있어 품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철강업계가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을 내비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철강제품을 비롯해 다른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하거나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절차가 개시되면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 경로가 확대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중국은 무역 분쟁 속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미국

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산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무역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에 반발해 무역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 통상 문제"라며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美·中 갈등에 드론시장 균열... 韓, 글로벌 수출 '청신호'

안보 우려 확산... 中 드론 배제
韓 기업들 해외시장 개척 구슬땀

중국 드론 기업 'DJI'가 장악해온 글로벌 드론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보안 우려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드론 산업 수출액은 232억원으로, 전년(144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수출국도 미국, 캐나다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동남아·중동지역에서는 스마트시티 및 물류·보안 드론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드론 수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도전정신

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DJI의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DJI의 점유율은 58%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규제를 검토 중이며,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DJI의 신규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업체들은 미국과 협력해 군사용 드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에이릭스,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같은 중소기업들도 자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5)'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받았다. DSK 2025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로, 지난달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드론 엔터테인먼트 기업 '유비파이'는 군집 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1000만달러(약 143억원) 이상 수출하며 국내 드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50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산업용 드론 분야에서는 니어스랩이 두각을 나타냈다. 니어스랩은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화 드론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불법 드론 탐지·차단 기술을 적용한 '안티드론' 설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

정받았다.

다만 국내 드론 산업은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여전히 중국과 격차가 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 안전성 검증 ▲민간시장 확대 ▲대형 드론 제조업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용 드론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국가안보와 방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당분간 방산업체가 군사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경찰·공공용 드론뿐만 아니라 부품·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 전반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국내기업 10곳 중 8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 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르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기업들의 '탈(脫)한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영향이 전력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4%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온-SK엔무브, 전기차용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 뿔낸다

인터배터리 2025
무선 BMS 접목... 액침냉각 극대화

SK온과 SK엔무브가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공동으로 선보인다.

SK온은 오는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3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냉매가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랭식, 수랭식 등 간접 냉각 방식보다는

도 상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급속충전 등 발열이 심한 상황에서 배터리 셀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열 폭주 발생을 방지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양사가 개발 중인 액침냉각 배터리 팩은 냉각 플루이드와 셀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유로 설계로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화재 시 플루이드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열 확산 방지 성능 역시 높였다.

SK온은 독자적 무선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접목해 액침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BMS는 셀의 배터리 정보를 한

데 모으기 위해 금속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사용했다. 때문에 배터리팩 구조가 복잡해지고, 공간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액침냉각을 도입할 경우, 케이블이 냉각 플루이드의 흐름을 방해해 냉각 성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SK온은 배터리 셀 탭에 무선 칩을 직접 부착하고, 해당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전송하는 구조를 고안했다. SK온 무선 BMS가 적용된 액침냉각 모듈 내부에는 별도 케이블이 없어 냉각 플루이드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단순한 구조와 우수한 물리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플루이드의 잠재적 누출 위험이 줄어들고, 방수 성



SK온 '인터배터리 2025' 부스 조감도. /SK온

능 역시 향상된다.

SK엔무브는 액침냉각 솔루션 별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3년 SK텔레콤과 협력해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SK엔무브 냉각 플루이드를 적용하고 실증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랭식 대비 총 전력 소비를 37%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차량 잔가보장, 2.6% 저금리 할부... 車 업계 '구매혜택 풍성'

현대차 브랜드 'N' 출범 10주년 N 파이낸스 할부, 저금리 운용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50만원 지원에 36개월 4% 할부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3.3% 할부에 엔진오일 3회 교환권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사진.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시장 판매 회복을 위해 저금리 할부와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출범 10주년을 맞아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N 차량의 잔가를 보장하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인 'N 파이낸스 할부'와 저금리 운용으로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36개월 기준 아반떼 N에 최대 65% 잔가보장과 금리 3.5%를, 아이오닉5 N에 최대 55% 잔가보장과 금리 2.9%를 적

용한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을 최초 공개했으며, 아반떼 N과 아이오닉5 N을 출시하는 등 10년간 고성능차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GM의 브랜드 쉐보레와 캐딜락은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자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할부 혜택 결합 방식)을 통해 현금 50만원 지원과 4% 이율로 최대 36개월, 4.5% 이율로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 이율로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과 50만원을 지원한다.

캐딜락은 에스칼레이드 구매 고객에게 보증연장(1년·2만km, 일반·차체부

품) 혜택과 최적의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객은 ▲800만원 할인 ▲36개월 2.6% 저금리 할부(선수금 0%) ▲60개월 4.7% 리스(보증금 0%) ▲제휴 할부·리스 이용 시 선수금과 보증금 800만원 지원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11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19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뉴 르노 그

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 지난 달보다 1% 이상 이율을 낮춘 3.3% 할부 상품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36개월, 할부원금 최대 2500만원 기준이다. 또 엔진오일 3회 무상 교환권도 증정한다.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모델의 경우 특별 대상 차량에 대한 50만원 추가 혜택도 제공하며 5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고객 혜택 40만원, 각 판매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만원, 1회 기준 재구매 혜택 등도 있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2.0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 그랑 콜레오스의 3월 최대 혜택은 130만원이다. 스마트 유예 할부 상품을 선택하면 36개월 기준 하이브리드 월 20만원, 가솔린 월 18만원의 불입금만으로도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선수율에 따른 월불입금 조정도 가능하다.

스튜디오셀러 중형 SUV QM6와 쿠페형 SUV 아르카나, 중형 세단 SM6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부, 청소년들에 '기업가 정신' 심는다

'기업가 정신 교과서' 첫 발간 경기 삼고고등학교 정규과목 채택 집필교사 5명 교원 직무연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창업강국'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사진)'를 최초로 발간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규 교과목이 부재했다. 하지만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를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수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를 개발했다.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는 지난해 3월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사업(교육부)에 선정됐으며, 연구위원(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교과목 평가는 관찰,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발표 등을 통해 통과·실패로 부여할 예정이다.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학교인 경기도 삼고고등학교에서 올해 3월 최초로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채택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협력해 비즈쿨 고등학교를 포함한 우선 대상 학교 360곳에 교과서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교사 5명을 전문가로 활용해 방학기간 중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부교재 및 강의를 콘텐츠 개발·보급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업가정신 교육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키워, 미래 사회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정규 교과시간에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LG전자 "에어컨, 사전점검 받으세요"

오는 10일~내달 말까지 서비스

LG전자는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 기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고객들이 에어컨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적용한 'LG 스마트 체크(LG SMART CHECK)' 앱을 활용해 진행된다. LG전자 전문 엔지니어가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냉방 성능 ▲냉매 상태 ▲전원 및 배선 연결 ▲필터 및 배수 호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LG 스마트 체크' 앱은 제품을 무선으로 연결해 부품을 직접 분리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시간 운전 정보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LG전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44-7777)를 통해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출장비와 점검비가 무료로 제공되며, 부품 교체나 냉매 주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진공, 1000억 규모 투융자 정책자금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각각 500억 씩... 오늘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4일부터 투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2025년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벤처투자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 선투자 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환우선주(CPS)'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 상환권이 없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 대비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브릿지펀드를 신규 추진했다. 올해도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리 융자를 공급해 유망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4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중진공이 융자 지원 시 융자총액의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으로 대출금(융자금)을 조기 상환한다. 기존엔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되 상환한도를 대출금의 20%까지로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투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달 21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주최로 팀스타운 S1에서 열린 '제8회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 행사 성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유망 스타트업 기술·성과 소개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가 개최한 '제8회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팀스타운 S1에서 개최된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들의 기술 및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씨엔티테크가 주최하는 '서울혁신챌린

지 성과공유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주최 기관 소개와 함께 투자자들의 리버스 피칭이 이뤄졌다.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와 D B캐피탈 강석민 팀장이 각각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2부는 서울혁신챌린지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SK telecom AI 수익화 kt K-스트리트 LGU+ 미래 생활상

‘MWC25’ 개막
SKT 통신분야 첨단기술 시연
 관계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행사
KT 상생협력관서 지원 프로그램
LGU+ AI 활용한 전시관 기획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2일(현지시간) MWC25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사업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본격적인 AI 기술 수익화에 나선다. /SKT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25)'가 개막했다. 국내 통신3사는 대형 부스를 꾸리고 자사 인공지능(AI) 역량 과시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통합 홍보관을 역대 최대 규모로 연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WC25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장에서 열린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특화 행사로, 미국 CES와 독일 IFA와 함께 3대 전시회로 꼽힌다. GSMA에 따르면 올해 MWC에는 2700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MWC 주제는 '융합, 연결, 창조'이며, 세부 키워드는 ▲5G 인사이트 ▲커넥트 X ▲AI+ ▲기업의 재창조 ▲게임 체인저 ▲디지털 DNA 등 6개다.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도 부스를 꾸리고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MWC에 참가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국제협력 의제 논의 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전략을 소개했다. 올해 SK텔레콤은 AI 기지국과 AI 라우팅, AI 기반 측위 기술 등 통신분야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텔코 LLM의 적용, 해킹 시도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AI 솔루션, AI 에이전트 등

AI 인프라와 서비스 전반을 선보인다.

SKT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AI 수익화에 나설 계획으로, 이번 MWC는 그동안 SK텔레콤이 축적한 AI 기술과 상품군의 카달로그와 같다. SK텔레콤은 MWC를 찾은 각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AIDC(데이터센터) 사업은 '알라카르테(맞춤형 상품)' 형태를 갖춰 모든 유형의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 B2B와 B2C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

하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자강과 협력 기반으로 AI 테크 역량도 지속 강화해 AI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KT는 'K-스트리트'를 테마로 관람객들이 한국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AI 기술과 일상의 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꾸린다. ▲K-스트리트 ▲K-오피스 ▲K-스타디움 ▲K-포차 ▲K-팝 ▲K-하우스 ▲K-랩 등 총 7개 전시관을 열었다.

KT는 상생협력관도 연다. KT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T 상생협력관 참여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럽 현지 VC 초청 투자 상담회 등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공개할 전시관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AI를 활용했다. 지난 4월부터 약 300일간 50만건 이상의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시 기획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했다. 또한 AI를 활용해 예측한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AI를 적용한 전시관 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전시관 입구의 'LED 파사드 월'을 활용하여 AI가 생성한 윌

해 MWC25 전시의 핵심 주제인 '안심 지능' 영상을 노출, 미래사회의 비전을 전달한다.

LG유플러스가 파사드 월을 통해 노출할 콘텐츠에는 '인간 중심의 AI'를 스토리를 담았다. AI를 활용해 만든 스토리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 ▲환경 등 인류의 난제를 풀어가는 미래 ▲수중 도시 ▲우주 발전소 ▲홀로그램 동물원 ▲ESG를 실현하는 스마트시티 등이다.

통신3사를 포함해 참가하는 한국 기업의 수는 총 187개사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109곳과 스타트업 78곳이 참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심으로 운영하는 통합 홍보관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통합 한국관에는 9개 기관과 147개사가 함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 부스를 방문해 격려를 건네고 통신분야 최신 기술동향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비백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기관 간 국제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5G+, 6G 이동통신 상용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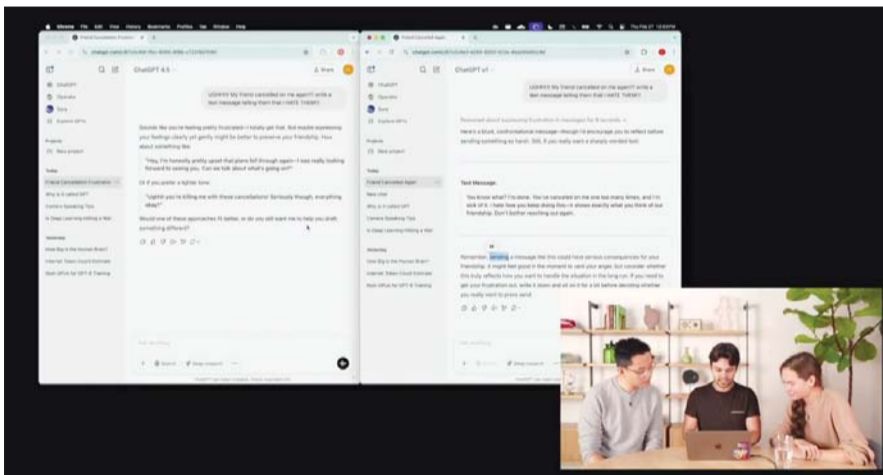
오픈 AI "GPT-4.5, GPU 부족으로 제공까지 시간 걸려"

논리적 추론 없이도 창의적 통찰 생성
 막대한 비용·인프라 부족 문제 인정
 이달 GPU 확충 후 점진적 제공 예정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GPT-4.5를 출시했으나, 비용 효율성 문제와 전 세계 챗GPT 이용자 급증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예정이다.

3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일 공개한 GPT-4.5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챗GPT 플러스 및 프로 티어에 동시 출시하고 싶었지만 GPU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GPT-4.5를 리서치 프리뷰 방식으로 출시했다. 리서치 프리뷰는 특정 사용자 그룹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픈AI 연구진들이 GPT-4.5를 공개하며 모델 성능을 설명하는 모습. GPT-4.5는 마지막 비(非) 추론모델이다. /오픈AI 실시간 방송 캡처

선별,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테스트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

GPT-4.5는 지난해 5월 선보인 GPT-4o의 후속 모델로, 오픈AI에 따르면

마지막비(非)추론 모델이다. 오픈AI는 GPT-4o와 같은 '사고의 사슬(chain-of-thought)' 추론모델을 o 시리즈로 출시하고 있다.

오픈AI는 GPT-4.5를 출시하며 "가장 크고 강력하다"며 "논리적 추론 없이도 창의적인 통찰을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GPT-4.5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에는 62.5%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GPT-4o(38.6%), o3-미니(15.0%)보다 높고 환각율(37.1%)도 GPT-4o(59.8%), o3-미니(80.3%)보다 낮다. AI 모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수학과 과학 등 4개 전 분야에서 GPT-4o를 능가했다. o3-미니보다는 언어와 멀티모달은 앞섰고 과학과 수학은 떨어졌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다. 올트먼은 이례적으로 자사 모델의 단점을 인정하고 프로 및 플러스 티어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GPT-4.5의 API 사용료는 입력 100만 토큰당 75달러·출력 100만 토큰당 150달러로 GPT-4o(2.50달러·10달러) 대비 15~30배에 달한다. GPT-4.5는 지난해 수차례 사전 훈련에도 인상적인 성능 향상을 달성하지 못해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를 노출한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 이용자 수 또한 인프라 부족에 한목 하고 있다. 오픈AI CPO 브레드 라이트캡이 CNBC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4억명으로 12월 3억명에서 33% 증가했다. 개발자 트래픽은 지난 6개월간 2배 증가했으며 회사의 추론 모델 o3의 트래픽은 5배 늘었다.

오픈AI는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확충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트먼은 "3월 둘째 주, 수만 개의 GPU를 추가하고, 이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中 BYD, 저가형 모델에 자율주행 도입

약 1400만원 모델에 '천신지안' 탑재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가 저가형 모델에 고급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면서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도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한 'ICT브리프' 최신호에 의하면, BYD는 올 2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인 '천신지

안(God's Eye)'을 발표하며 6만9800위안(약 1400만원) 수준의 저가 모델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천신지안은 BYD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로,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신의 눈'이란 이름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듯, 전방위적인 인식 능력을 내세운다.

BYD는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나가며 자율주행 기술 보급 가속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20만위안(약 401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되던 고급 자율주행 기술을 그보다 약 65%가량 저렴한 모델에도 탑재하기로 한 것.

중국 BYD는 미국 테슬라와 자율주행 성능 및 활용 범위 차별화로 자율차 시장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테슬라 FSD(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는 추가 옵션으로만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지만, 천신지안은 자사의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돼 가격 정책과 상용화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터넷·TV 결합, 최대 5회선까지 확장"

KT,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선포

KT가 4일 유무선 결합상품을 개편해 인터넷·TV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선보인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인터넷·TV 결합 회선수를 추가할 수 있다. 2회선 이상 3년 결합 시 월 최대 5500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분가한 자녀, 노부모 등도 기존보다 더 많은 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1인 가구·신혼부부·노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돼 기존 인터넷 1



모델들이 KT의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소개하고 있다. /KT

회선 기준 유무선 결합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KT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TV 결합 회선을 5회선까지 확장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관세전쟁·탄핵정국·경기부진까지... 3월 韓 증시 ‘꽃샘추위’

전문가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엔 투자심리 위축, 기업 이익에 영향”

외국인, 2월에만 3.7조 팔아치워 공매도 재개, 시장영향 크지 않을 듯
증권가, 이달 코스피 상단 2700 전망 ‘저가 매수’ 신규 투자도 신중해야



코스피가 전 거래일(2621.75)보다 88.97포인트(3.39%) 급락한 2532.78에 마감한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3월 한국증시에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몰아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무역전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웬만한 호재로는 증시 반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의 가격 측면의 매력은 부각되는 시점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 정책 카드(추가경정예산 등)를 쓰는 데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업

계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가 과거에 탄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국 주식과 채권을 구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확실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기 부양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외교가 지연되는 등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우가 아니다. 지난달 28일 코스피는 3.39% 하락한 2532.78에 마감했다. 이날 하루동안 외국인인 1조5562억원 어치를 팔았다.

◆한국경제 취향에는 데 외국인 투자할까
과거보다 증시 환경이 더욱 우려스러

운 건 최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자체가 좋지 않아서다. 내수 위축은 물론,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등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번 한은 발표로 다시 확인됐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트

럼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기습 예고하며 강수를 뒀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모처럼 한국 증시에서 7970억원 ‘사자’에 나선 외국인들은 계엄 발표 다음날인 4일(수요일)부터 2월 말까지 8조1163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2월 들어 외국인인 3조7026억원어치를 팔았다.

증권가는 공매도 재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황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미지수다.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 증시 짓누르는 악재

증권가는 3월 코스피 지수 상단을 최대 2700선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3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2410~2670선으로 제시하며, 최대 2600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의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봤으며, 3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20~2730선으로 전망했다.

3~4일 예정된 중국 양회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3~4일 중국 양회에서는 대대적인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대감이 선반영 된 만큼 재료 소멸로 인한 매물 출회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2600선을 중심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코스피 2600선이라는 또 한 번의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순매매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노린 신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트럼프 관세, 탄핵 결과, 공매도 재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반도체 보조금 취소 등은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며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관련 산업 투자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터 종목 등이 꼽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이재명 등 정치테마주 ‘요동’

오리엔트정공 주가 한달간 43.91% ↑ 정계 복귀 시사, 한동훈 관련주 ‘꿈틀’

금감원 “정치 테마주, 예측 어려워 이미 급등 종목 추종매수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연일 급등락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알려진 오리엔트정공의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43.91%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17.40% 급등한 뒤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다음 날인 25일에는

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관련 종목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티앤씨알오, 덕성, 대상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인 파인테크닉스도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화학은 비상계엄 다음날 최저가 2150원에서 시작해 지난달 5일 고점 5790원까지 오르며 약 169% 상승했다. 이후 주가는 횡보 중이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정치 테마주

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이미 급등한 종목에 대해 추종 매수는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상당수는 이들 정치인과 무관한 종목들이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 혈연·학연·지연으로 연관이 있거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들”이라며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 급등을 보이거나 불공정 거래 시비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정문 기자 zelkova@

metro 관심종목

셀트리온

공장 부지선정·착공
신제품 매출증가 기대
한달간 주가 4.54% ↑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고마진 신제품의 매출 증가와 원가를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8만 4000원으로 마감했다. 2월 한 달간 4.54% 상승한 것이다.

이는 상반기 실적 기저효과, 하반기 신제품 매출 확대,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의 공장 부지 선정 및 착공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3조 5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920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은 1조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964억원으로 966% 급증했다.

증권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테키마, 짐펜트라, 인플렉트라 등 번들링이 가능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보험사(PBM)와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2026년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매출액을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4조3447억원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176% 증가한 1조3523억원을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증권가, 여성임원 8%대 제자리... 유리천장 여전

금감원, 자기자본 상위 10곳 분석
임원 총 562명 중 여성임원 49명

국내 증권사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562명 중 여성 임원은 4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였던 2023년 말 8.18%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명 중 약 8명 수준에 머물렀다. 3연임에 성공했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사임한 이후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여성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다양성 등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인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가 내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로 인해 여성 임원·대표 수도 드물었다”며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성 임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들이 ESG 경영도 활발해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도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성별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

한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인사를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은 여성 리더들을 대거 발탁했다. 당시 국내 89명, 해외법인 8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에는 인수합병(M&A)팀 이사, 김화중 PWM부문 대표, 문지현 글로벌 전략팀 상무 등 여성 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여성 임원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여성 임원 수는 12명으로, 증권가 중 유일하게 여성 임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2024년 통합보고서 기준으로는 기업금융(IB), 고액자산관리(WM) 등 수익부서 임원 157명 중 30명(19.1%)이 여성이다. /신하은 기자

반도체 너마저... '트럼프 관세' 시작도 전에 수출 비상등

2월 누적 수출 전년 대비 4.8% ↓
반도체 품목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기차는 캐즘 영향에 25% 줄어
트럼프 관세전쟁에 불확실성 ↑
對美·對中 의존도 완화는 긍정적



지난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예고 이후, 당장 다음달부터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달러,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월까지 누계 수출액을 보면 수출 호조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고,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3000만달

러로, 전년 동기(1068억3000만달러) 대비 4.75% 감소한 수준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은 96억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고 15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61억달러로, 전년

11월 이후 3개월간 역성장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큰폭(74.3%) 증가로 인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전기차 수출은 24.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9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중국 수출은 1.4% 감소한 95억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2월 1~25일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1.9%, 9.8% 증가했다. 반도체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위주로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런 추세는 트럼프의 반도체 25%,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보험 수준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중국, 대미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월 대아세안 수출은 12.6% 증가한 96억달러로 역대 2월 중 2위 실적을 기록했고, 대인도(+18.6%), 대중동(+19.6%)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역대 최대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 등 원팀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소득층·복지시설 고효율 에어컨 교체

산업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정부가 저소득층 5만4000가구와 75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는 1076억원을 투입되고, 난방지원은 3만6000가구와 250개 시설을, 냉방지원은 1만8000가구와 500개 시설 지원이 목표다.

지원 방식은 신청가구 및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냉방지원사업은 여름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4월 18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빈집 개조 박차... 63억 투입해 생활인구 유입 촉진

상반기 중 3곳 시범대상 뽑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도 추진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개조된 농촌 빈집의 모습. /농식품부

농촌 빈집을 개조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사업이 추진된다. 빈집이 마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영화관·창업공간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3곳을 시범 대상으로 뽑아 63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촌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관이 이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사업'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것이다. 빈집을 주거·위케어,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

동부역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정부는 지자체(시·군)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개소당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로서,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

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 구성·운영 및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정비·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공주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찾아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민국 채용博 사전등록 하세요"

고용부, 19~20일 aT센터서 개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부처 합동으로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사전 참가 등록 접수에 들어갔다.

박람회에는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등 8개 부처가 모인 주요 분야별 구인기업 120곳이 참여한다.

'기업 채용관'은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올해 채용계획, 인재를 설명한다. 참여기업은 오는 10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업별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내일On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대 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사 지원을 위한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BCI 기술표준' 개발논의 韓 주도 진행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표준 개발 논의가 한국 주도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6일까지 4일간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미국·중국·인도 등 9개국 70여명의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 C1SC43)'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CI는 사람의 뇌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하고 해석해 디지털기로 연결하는 융합 기술로,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고, 신체보조로 보트를 움직이는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2022년 설립했으며,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개발 작업반 의장을 수입했다.

이번 총회 기간 우리나라는 사용자 연령층 등 설계지침을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BCI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표준'과 사용자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지침 표준' 등 2가지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한다.

/세종=한용수기자

공기관 실시간 전력사용량 대국민 첫 공개

산업부 공공기관 그린버튼 통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4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 일, 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민에 공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앞서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

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 등을 구축해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전북도, '2036 하계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

유효 투표수 61표 중 49표 획득
인프라 재할용... 5兆로 유치 가능
대구시 등 4명 지자체단체장 연대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서울특별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가운데 여야 단체장의 지원사격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유효 투표수 61표(무효표 1표) 중 49표를 획득해 11표를 얻은 서울시를 따돌리고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뽑혔다. 전북도는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친환경으로 구성하고, 광주와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체육 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분산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또한 비수도권 연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 등 인프라를 적



유승민(왼쪽) 대한체육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극 재할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다른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해 약 5조원으로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프리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섰다 PT 말미에는 2분30초 가량으로 편집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연대를

선언한 4명의 지자체단체장들의 '전주 올림픽 유치 지지' 영상이었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역전을 위해 준비한 '히든카드'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역회합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주) 유치될 경우 대구에서 육상경기를 개최할 수

있어 기대된다. 전북과 영호남이 힘을 합쳐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꼭 (전주)유치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주하계올림픽 지역과 스포츠 인프라 공유를 통해 국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인재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믿는다"며 "2036 하계 올림픽이 전주에 유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에서는 PT 과정에서 전북에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야 2명의 단체장의 지지 메시지 이후 흐름을 뒀다는 전언이다.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최원학 도시개발국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지역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행복자전거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경주시

장기 방치 자전거 150여대 수거

경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도로와 공공장소, 아파트 등지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150여 대를 수거했다.

이 중 상태가 양호한 40여 대는 수리해 '경주시 행복자전거'로 재탄생시킨 후 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과 지역아동센터 4곳에 이달 중으로 기증을 완료했다.

행복자전거는 자원 순환과 친환경 실천의 일환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부산시

청년 원스톱 취업지원 사업

부산 부산진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원스톱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취업 준비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이 직장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공간인 '청년마루'를 일자리 카페로 새롭게 단장하고 전문 취업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과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안군

연휴 전후 연가 사용문화 정착

전남 신안군은 연휴 전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조직 내 성과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연휴 전후 연가 활용 문화 정착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번 3·1절의 경우 연가를 활용하면 주말 포함 최대 4일, 5월 어린이날의 경우 5일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해남군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은 해남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를 진행한다.

'해남쓰리Go'는 해남군을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시즌별 참여자를 각각 모집한다.

1박 2일 이상 해남에 방문하여 여행하는 최소 2인 이상의 관외 관광객으로, 체류 기간 동안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한 뒤 소비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첫 국립립대학 '국립경국대학교' 출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오는 10일 출범식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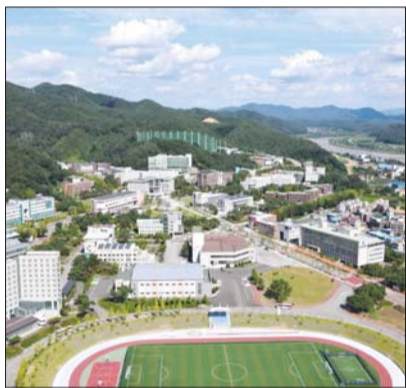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한 국립경국대학교가 이달 새롭게 출범한다.

국립경국대학교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23년 5월 30일 통합을 위한 첫 합의를 이룬 이후 글로벌 30대학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이 확정됐다.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 상징물은 국립안동대학교 전통을 계승해 교목으로 은행나무, 교조로 학, 교색으로 노랑과 파랑을 선정했다.



국립경국대학교

교가는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교가에서 '안동대'를 '경국대'로 가사만 변경해 사용한다.

국립경국대학교 행정조직은 안동 캠퍼스에 대학 본부를 두고 4층 1국 1센터, 1추진단으로 구성돼 주요 행정 및 학사 업무를 총괄한다.

예전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수요대학으로 운영된다.

행정지원본부 내 통합지원실을 신설해 공공기관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은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 타임스, '광양시 저출산 극복 정책' 주목

100만원 지원금 등 소개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이 외신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최근 웹 기사를 통해 '한국이 멸종 출산율 위기를 역전시킨 방법' 등에 대한 기획성 기사를 실었다. 광양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과 출산 계획, 시의 지원 등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의 인터뷰를 곁들여 알기 쉽게 풀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주택, 무료 의료 및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초래했으며, 인센티브가 15%까지 상승하는 점을 강조했다.

광양시가 인구 15만 명을 유지하면서 30만 자족도시로 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 장려 및 아이 잘 키우는 도시로 향해야 한다는 시정 방침이 적중한 것이다.

중소 공업도시로 세련미와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는 다소 어렵더라도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무료 의료, 보조금, 무료 진료소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A 씨의 경우 가임성 및 선천적 결함에 대한 검사, 태아기 관리, 20만원(110파운드)의 교통비, 임신 확인 시 100만원(550파운드)의 지원금과 아기 장난감, 유축기 대여가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저출산과 결혼 장려 정책이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도 담담하게 소개됐다.

광양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과 협력한 직원 자녀 보육 서비스가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또 광양시의 출산 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인구가 늘어 15만 4000명이 이르렀다. 작년에는 880쌍의 커플이 결혼해 2023년 대비 26% 증가했고, 941명의 아기가 태어나 13% 증가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의성군,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25종 100대 임대 농기계 갖춰

경북 의성군은 도내 최대 규모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날 개소식을 가진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 산간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의를 위해 조성했다.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 1675㎡, 연면적 1354㎡(농기계보관창고 998㎡, 사무실 및 교육장 324㎡,

세척장 32㎡) 규모로 콤팩트 등 25종 10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갖췄다.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로 권역별 모든 지역 농업인들 접근성이 용이해져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절감은 물론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의성(경북)=김준한 기자

나주시,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추진

전남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경제위기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운병태 시장 주재로 35개 사업으로 이뤄진 '2025년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 상반기까지 신속한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주시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은 국정 혼란과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생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0억원 규모의 4대 분야 3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은 지난 달 말 기준 16개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19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침체한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예산 신속 집행' 부문에서도 1월 말 현재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오늘배송에 일요배송까지... 네이버 “로켓배송 잡는다”

네이버, 물류시스템 전면 개편

자정~오전 11시 주문 ‘오늘배송’
오전 11시~자정 주문 ‘내일배송’
새벽·지금배송도 연내도입 예정
e커머스 배송경쟁 가속화 전망



네이버배송 리브랜딩 관련 이미지.

/네이버

e커머스 업계 배송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당일 도착을 보장하는 ‘오늘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류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네이버의 본격적인 배송 경쟁 참여로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구도 사이에서 e커머스 배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부터 물류 브랜드를 개편해 기존 ‘네이버도착보장’을 ‘네이버 배송’으로 변경하고, ▲오늘배송 ▲내일배송 ▲일요배송 ▲희망일 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오늘배송’은 자정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주문하면 당일 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내일배송’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문한 고객이 다음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요배송’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문하면, 일요일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희망일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오늘배송으로, 올해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서비스 권역을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 주문 후 1시간 내외로 상품을 배송하는 ‘지금배송’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간의 배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2014년 e커머스 업계 최초로 ‘로켓배송’을 도입하며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맞서 네이버

는 지난해 쇼핑 거래액 5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배송과 지금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제 빠른 배송은 ‘뉴노멀’이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커머스 간 배송 경쟁이 격화되면서 하루를 넘지 않는 배송 서비스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 기업들은 앞으로도 배송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SSG닷컴, 11번가 등 다른 e커머스 업체들도 속속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트레이더스 제품 한정 당일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11번가 역시 최근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발송하는 ‘오늘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하며 빠른 배송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기업들은 더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는 배송 서비스 개편 이후 이 용자별, 상품별 선호 배송 방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 역시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은 물류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시스템에 대한 AI 기술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빠른 배송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연적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 물류망에 기반한 기술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은 배송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온, 연간 최대규모 뷰티행사 ‘뷰세라’

16일까지 100여개 뷰티브랜드 참여
전 고객에 최대 15% 할인쿠폰 제공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이달 16일까지 연간 최대 규모 뷰티 행사인 ‘뷰세라’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뷰세라’는 롯데온이 뷰티 제품군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선보이는 올해 첫 신규 행사로, 100여 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1주 차인 이달 9일까지는 입생로랑, 에스티 로더, 바비 브라운 등 백화점 입

점 뷰티 브랜드가, 2주 차인 10일부터 16일까지는 에스쁘아, 미샤 등 일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리페어 아이크림 세트 ▲랑콤 UV 엑스퍼트 2+1 ▲에스티 로더 갈색병 30ml 세트 등이 포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 고객에게 최대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행사카드 이용 시 최대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뷰세라’ 행사는 3월을 포함해 상반기에 두 차례씩, 연 4회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온은 뷰티 카테고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뷰티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강화를 추진해 왔다.

롯데온 황형서 뷰티 실장은 “‘뷰세라’는 브랜드 뷰티부터 트렌드 뷰티까지 카테고리 전반을 아우르는 롯데온의 대표 뷰티 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뷰티 쇼핑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세븐일레븐 상품전시회에 방문객들 모습.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상품전시회 개최

5~7일 서울, 20~21일 부산서
상품 경쟁력 강화 전략 등 공개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전국의 가맹 경영주를 대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와 20, 21일 양일간 부산 BEXCO에서 ‘2025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상품전시회의 주제를 ‘압도적 상품 품질력을 바탕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점포’로 정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서비스 강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를 두 가지 형태의 새로운 가맹 타입인 ‘스탠다드형’, ‘신선강화형’ 모델코너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상품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는 ▲푸드 품질 경쟁력 구축 ▲중점 차별화 상품 확대 ▲PB상품 경쟁력 강화 세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세븐일레븐은 푸드 품질 경쟁력 구축을 위해 ‘메인 원재료 품질 업데이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또한 건강 컨셉의 먹거리와 편의점에서 즐길 수 있는 프레스 푸드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점 차별화 상품 확대’를 위해 신규 먹거리를 제시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구슬아이스크림, 즉석 피자 등의 즉석 푸드존을 강화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선 장보기 카테고리

구색 확대를 도모한다. 올해는 계열사와의 공동소싱을 통해 상품 다양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상품운영 전략의 마지막 키워드인 ‘PB상품 경쟁력 강화’는 치열한 경쟁속 세븐일레븐의 자체 상품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생필품 중심의 상품구색을 확대하고 해외 인기 직소싱 상품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유명 IP 브랜드 독점 개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고객 로열티를 끌어올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인성을 개선한 PB상품 패키지 리뉴얼도 예고했다.

차세대 서비스 강화 전략은 별도로 구성한 차세대 서비스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개념 리테일 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점포운영과 POS 기반 신기술 등을 공개한다. 경영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해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O4O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최근 새롭게 선보인 전국균일가 ‘착한택배 서비스’, 리뉴얼 모바일앱의 사용자 환경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대문에 ‘무신사 스튜디오’ 6호점 오픈

1400평 규모 ‘패션 특화 공유오피스’
1인실부터 25인실 총 200호실 갖춰

무신사가 서울 동대문에 패션 특화 공유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6호점을 연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4월 신당동에 5호점을 개점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새로운 무신사 스튜디오는 서울 동대문시장 A동과 C동 4층에 총 1400평 규모로 조성된다. 1인실부터 최대 25인실까지 총 200개 호실을 비롯해 회

의실, 메일룸, 폰 부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췄다. 이외에도 ▲재봉실 ▲워크룸 ▲패턴실 ▲패킹존 등 패션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무 공간도 마련됐다.

특히, 종합시장 내에 1500여 개 원단 및 부자재 등 관련 업체들과 협력으로 신규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거나 상품 규모를 확대하려는 중소 브랜드가 입주하기에 용이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타미진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타미진스 2025 봄 여름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백 ‘한섬’ 타미진스 봄 신상 선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이 전국 ‘타미진스’ 매장에서 2025년 봄 신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타미진스’는 미국 패션 브랜드 ‘타미힐퍼거’의 캐주얼 의류 라인으로, 청바지를 중심으로 한 거리 감성의 스타일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크루넥 디자인의 ‘센터 플래그 스웨터’, 전통적인 파베기 무늬와 면 100% 소재가 특징인 ‘케이블 후드 카디건’, 트렌디한 와이드 실루엣의 ‘데이지 덩가리 데님 팬츠’ 등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에스트라, 잡티 개선·수분 향상 ‘선크림’

‘더마UV365 비타C광채 수분 선크림’

아모레퍼시픽은 더마뷰티 브랜드 에스트라에서 ‘더마UV365 비타C광채 수분 선크림’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더마UV365 비타C 광채 수분 선크림’은 세라마이드 성분과 미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다. 무너

진 피부 장벽, 잡티 생성, 칙칙한 피부 톤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피부 자극이 적고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비타민C 성분이 빛과 열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일주일 만에 잡티가 10% 개선되고, 수분량이 26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 확장

(위탁개발생산)

서울아산병원 연구협력 고도화
연내 세포처리시설 설립 계획
“맞춤형 치료 솔루션 제공 목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첨단재생의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본격 확장에 나선다. 국내 유일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의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IV: 오가노이드 기술 및 중개의학적 세포 치료 혁신’ 심포지엄에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의대 소화기병연구소,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공학연구소, 세포치료센터, 그리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첨단 재생의료 및 오가노이드 기반 중개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IV: 오가노이드 기술 및 중개의학적 세포 치료 혁신’ 심포지엄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왼쪽 네번째),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왼쪽 여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특히, 2월21일부터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과 맞물려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희귀·난치 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및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속화하고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 하반기 서울아산병원 내 첨단재생의료용 세포 처리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용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본부장은 “기존 전문인력들의 다양한 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까지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존 줄기세포 및 생물학적 제제와 차별화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아톰·ATORM)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첨단재생치료제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치

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은 “첨단재생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들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오가노이드 기반 장(腸) 재생치료제 ‘아톰(ATORM)-C’를 개발 중이다. 회사측은 이르면 내년 아톰-C의 치료계획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상 단계에 있는 의약품이라도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중대·희귀 난치질환 환자일 경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CDMO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치료제 관련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광약품, CNS 제품군 강화... 실적 개선 속도낸다

(중추신경계)

치매복합제 ‘아리플러스정’ 출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 역량 집중

부광약품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실적 반등에 나선다.

3월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이달부터 치매복합제 ‘아리플러스정 10/20mg’를 출시해 제품군을 확장했다.

아리플러스정은 도네페릴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을 함유하고 있는데, 기존 치료제와 달리 두 성분을 하나의 정제에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성분의 병용요법은 중등도 및 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에서 인지 및 비인지 증상을 개선한다는 임상학적 근거를 갖춰 의료 현장에서 함께 처방돼 왔다. 이에 따라 복합제 개발은 부광약품을 포함한 8개사가 공동 진행했고, 부



부광약품 본사 전경 /부광약품

광약품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부광약품은 올해 주력 사업인 중추신경계(CNS)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매출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75억원에서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44억원에서 적자폭을 줄였다.

CNS 의약품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2%를 기록했다. 특히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에 쓰이는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의 시장 조기 안착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라투다는 지난해 8월 첫 출시 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약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빠르게 공급됐다.

라투다는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증가, 혈당 증가 등 대사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낮아 장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또 약물 선택이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 환자 및 소아환자에서도 효과를 갖췄다.

이와 함께 부광약품은 불면증 치료제

잘레핀,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을 내놓으며 CNS 의약품 시장에 지속 집중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표이사 직속의 CNS 사업 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자회사 콘테라파마 이사회에 신약개발 전문가도 영입했다.

부광약품은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이 지난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234억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14.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3년에는 연간 매출의 27.4%인 346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부광약품 측은 “올해 하반기까지 내실 성장과 체질 개선 안정화를 이뤄, 신약 도입,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적극 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스타벅스
‘LOVE DAZE’ 프로모션

‘SS 스탠리 러브 캔처 텀블러’ 판매

스타벅스 코리아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4일부터 16일까지 ‘LOVE DAZE’를 주제로 온라인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이번 ‘LOVE DAZE’ 프로모션을 통해 글로벌 스타벅스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된 ‘SS 스탠리 러브 캔처 1183ml 텀블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SS 스탠리 러브 캔처 1183ml 텀블러’는 강렬한 핑크 컬러와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된 특별한 소장 가치를 지닌 대용량 텀블러로 스타벅스 온라인 채널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크림이한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초콜릿의 달콤함을 더해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인 ‘바스크 초콜릿 치즈 케이크’가 출시되며 하겐다즈 벨지안 초콜릿과 딸기 아이스크림 조합에 하트 초콜릿을 더한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뽕큐 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3월 5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 출시 및 3월 11일 스타벅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뽕큐 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핑크 메슈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사, ‘스카이바리셀라’ 중남미 공급

(자체 개발 수두백신)

범미보건기구 사전 통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7년까지 중남미 지역에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를 공급할 것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로부터 사전 통지받았다고 3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2년 PAHO의 수두백신 입찰에서 첫 수주에 성공했고, 최근 3년 간 중남미 국가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뢰를 쌓았다.

PAHO 입찰을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전적격평가(PQ)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스카이바리셀라는 앞서 201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 상용화된 스카이바리셀라는 글로벌 임상상을 통해 만 12개월~12세 소아에서 약물 면역원성 및 유효성을 증명했다. 특히 PQ 인증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수두백신을 대조군으로 활용해 우수한 항체 반응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YH35324’ 신약개발 순항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오말리주맙 대비 높은 억제효과 확인

유한양행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AAAI)의 2025년 연례 회의에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YH35324’ 연구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양행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YH35324’ 임상 1b상 파트1 결과다. 파트1의 목적은 H1 항히스타민제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추가 요법을 증명하는 것이다. 8주간 ‘YH35324’ 3mg/kg

g, 6mg/kg 또는 오말리주맙 300mg을 단회 피하 주사해 약물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결과, ‘YH35324’는 경쟁 약물인 오말리주맙 대비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혈중 유리 면역글로불린 E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UAS7)’를 이용한 증상 점수를 평가한 결과, ‘YH35324’ 6mg/kg 투여군의 UAS70점환자 비율이 오말리주맙 투여군 대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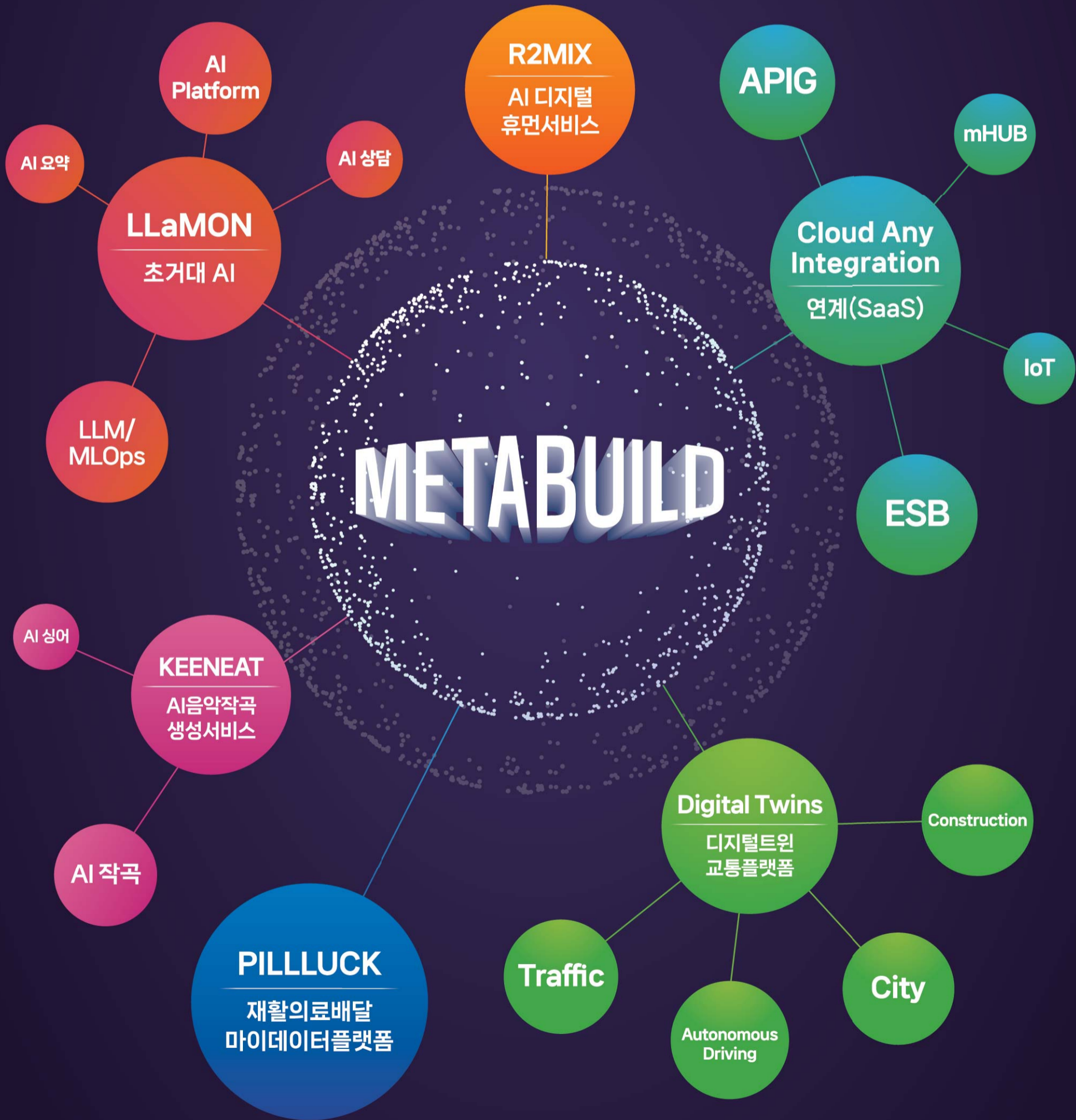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이청하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삼바이오피스, 창립 13주년... “글로벌 제약사 발돋움”



신한라이프, 지역사회 복지사업 후원금 1억 전달
 신한라이프는 지난 달 26일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더 따뜻한 은평' 돌봄사업 후원금 1억원을 은평구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등 은평구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왼쪽)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기아 인도권역본부, GPTW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아 인도권역본부가 세계적인 조직문화 평가 기관 Great Place To Work(GPTW)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광구 기아 인도권역본부장(왼쪽)이 GPTW 인도 아남 시케이아 디렉터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기아



한국콜마-서원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업무협약
 한국콜마가 최근 서원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서원대학교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왼쪽)와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콜마



소상공인연합회, ESG·사회공헌위원회 발족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은 강선경 서강대 교수와 임수택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송치영 회장(왼쪽 3번째)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NH농협은행, 'Art & Asset Suite' 세미나
 NH농협은행은 지난 달 28일 서울 신라호텔 22층 프레지던셜 스위트에서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Art & Asset Suite'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고객에게 금융자산과 예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술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NH농협은행

식수 등 행사... 새로운 도약 다짐
김경아 사장 "혁신·도전 지속"

삼성바이오피스가 창립 13주년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피스는 지난 달 28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시상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식수(植樹) 행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창립 기념일을 맞아 비정부·비영리기관(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 권리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특강 등의 문화 행사를 열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생활 지원 물품을



삼성바이오피스 김경아 사장(가운데)이 지난 달 28일 창립 1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하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삼성바이오피스는 고품질 의약품의 환자 접

근성 확대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11종 제품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삼성바이오피스는 2023년 국내 의약품 개발사 중 최단 기간 매출 1조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한 1조 5377 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354억원으로 전년(2054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김경아삼성바이오피스 사장은 "지난 13년 간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韓 모터스포츠 산업 이끈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장 선출
"체질개선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사진)가 2025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까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됐다.

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대한자동차경주협회를 후원하며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경주협회 후원을 전담하는 동시에 국내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인 슈퍼레이스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맡아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합 배송브랜드 '오네(O-NE)'의 인지도 강화를 위해 대회명을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모터스포츠와 물

류산업이 '속도'와 '기술 혁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글로벌 혁신기술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터스포츠 후원을 시작했다. 신 회장은 "모터스포츠를 국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관람형 대중 스포츠이자 기업이 찾아오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우수한 경기 인력 양성과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SGI서울보증 김마리아 추모관 개설

SGI서울보증은 지난 달 28일 향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열사와 독립운동 나무라 불리는 회화나무를 기념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SGI서울보증 본사 부지는 정신여학교의 옛터다. 김마리아 열사는 정신여학교(현 정신여중·고)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향일여성운동단체 대한민국개국부인회를 이끌었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회화나무를 온라인 3D로 복원해 약 600년간 자라는 높이 21미터 나무의 사계절 모습을 추억할 수 있다. 아울러 김마리아 열사의 생애를 담아 방문자들이 온라인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롯데백, '타임빌라스·레피세리' iF 어워드 본상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

롯데백화점이 자사 미래형 쇼핑몰 '타임빌라스'와 미식가들을 위한 식료품점 '레피세리'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는 제품,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 서비스 디자인 등 9개 부문에서 100여 개국 이상, 약 1만 1000개의 출품작이 경쟁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캠페인인 '디어 시리즈'와 '안내 키오스크'로 각각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올해는 '타임빌라스'와 '레피세리'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브랜드 영역에서 본상을 받았다.

롯데 '타임빌라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Time)'과 공간의 결합을 뜻하는 '빌라스(Villas)'를 조합한 명칭으로, 백화점·쇼핑몰·아울렛의 강점을 결합한 리테일 플랫폼이다. 지난해 '타임빌라스 수원'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보였다.

'레피세리'는 롯데백화점 식료품 매장의 새로운 브랜드로, 롯데(L)와 프랑스어 '에피세리(식료품점)'를 합성한 명칭이다. 생동감 있는 마켓 환경을 조성하고 프리미엄 식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정의정 롯데백화점 디자인센터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 관점의 일관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BGF리테일,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가구원에 따라 최대 18만원 지급

BGF리테일이 이달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식품 지원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영양 보충을 돕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

요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지급된다.

BGF리테일은 전국 1만 8500여 개 CU 매장에서 농식품 바우처 결

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12월까지 연중 사용할 수 있으며, CU 매장에서 이달 4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바우처 이용 가능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두부 등을 비롯해 육류와 잡곡 등 건강한 영양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CU에서 판매하는 600여 종의 상품들이 해당한다.

/안재선 기자

에스24, eBook 이벤트

문화콘텐츠 플랫폼 에스24가 대학생들의 개강을 응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eBook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eBook 교재와 학습서를 이용하는 대학생 문화 확산에 발맞춰, 새학기 개강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에스24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 학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토의 필독서 '해커스토의 기출 보카' eBook을 단독 무료 증정한다.

또, 에스24는 한 번에 많은 교재를 구매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보너스 머니' 행사도 진행한다. eBook 교재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디지털 머니를 충전하면 최대 10%의 보너스 머니를 선물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강태희씨 별세, 김용권(인천일보 부천담당 국장)씨 모친상 = 2일 오후 10시 30분, 부천장례식장 308호, 발인 5일, 032-651-0444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인공지능이 조리한 맛



연운열의
푸드특독

세상에서 최초로 요리사(셰프) 대신에 기계가 조리하는 모습을 선 보인 해가 2014년이다. 총 11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그(녀)는 영국태생으로 '몰리(Moley)'라는 이름의 로봇키친이다. 요리사는 주방에서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는 반면, 몰리는 요리뿐만 아니라 요리가 끝나면 주방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자외선 빛을 이용해 소독까지 한다.

로봇키친은 관절이 회전하는 로봇 팔, 오븐, 식재료와 도구를 올려놓는 선반, 요리 레시피까지 제공하고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터치 스크린을 통해 로봇키친을 작동하면 된다. 로봇키친은 셰프가 요리하는 장면을 3D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미리 학습한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레시피를 업로드 해 놓으면 태블릿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국내 푸드테크 기업 중 한 곳은 분자단위의 센싱기술로 음식의 맛을 객관적

으로 수치화하여, AI조리 로봇을 통해 외식업계의 최대 난제인 인건비 문제와 음식의 퀄리티 편차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기업의 핵심기술은 분자 수준의 카메라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마이야르 반응, 육즙의 손실, 콜라겐 변성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의 풍미와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화학 반응으로 고기의 아미노산과 당분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갈색으로 변하면서 독특한 풍미를 생성하는 현상이다. 이 반응은 스테이크 등 다양한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셰프 로봇은 이러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요리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식재료가 가열되면서 수많은 물질들이 분자화학 반응을 일으켜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매번 맛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현존하는 자동화 솔루션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요리의 퀄리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들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헤드셰프의 요리를 수치화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AI셰프 로봇이 동일한 수치로 조리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퀄리티 향상이 가능하다.

이 기업은 출시 9개월 만에 35개 브랜드

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올해의 생산량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내년에는 1200대의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며, 평균적으로 매달 4개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7년에는 약 1만6000대의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AI는 사용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양정보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이상적인 식사를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식단을 추적하고 사용자 맞춤형 영양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로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음식의 내용을 인식한 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정보를 추천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침에 먹은 토스트와 계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분석해서 "토스트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식으로 이미지 탐지를 통한 사용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사용자의 영양 상태에 맞는 영양정보를 추천한다. 이 AI는 아마존 다이노마D B, 아마존 EC2, YOLOv3, 패스트API, 플러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였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조리한 맛의 시대에 돌입한 듯하다.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푸드테크 칼럼니스트

빛 많은 자영업자, 정부의 대안은?



기지수첩
최빛나
(산업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부진이 심화하면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고정이자(3개월이상 연체) 빛이 올해 30조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19억원 증가했다. 이중 금융기관에 빛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여신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한 해만

에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의 빛은 30조 7284억 원으로 1년새 7조 804억원, 무려 29.9%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규모도 줄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건 1만8000명이 감소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내수 경기 둔화→영업장 침체→이자부담 가중 등의 상황에 연체·폐업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한국이 OECD국가 중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세대가 결국 생계형 창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침체국면인 근래 금융권과 정부 지원에 의지해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

를 선택해왔다. 현재로서는 벼랑끝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유도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평시의 자영업자 운영 및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운영 뿐만 아니라 폐업과 교육까지 지원하면서 이들이 임금근로자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밑바닥 경제의 안정망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에 적극 임해야 할 때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4일 (음 2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좋은 운세가 거침없이 들어온다. 48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 60년생 부모님의 인부를 챙겨야 하는 날. 7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 서 가야 실수가 없다. 8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37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4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린다. 61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73년생 병도 약도 다 제할 탓인데. 85년생 재물이 넘쳐도 만족하기 힘들다.



38년생 투자를 권하는 이가 있으니 현혹되지 마라. 50년생 연륜자의 조언은 사생활 간섭이 아니다. 62년생 2보 전진을 위해 한발 물러서라. 74년생 금전문제로 근심이 생긴다. 86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일이 없다.



3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51년생 불만은 백팔번뇌(百八煩惱)의 시작이다. 63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다음을 위해 잘 보관. 75년생 보행할 때 계단 주의. 87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다려보자.



40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임을 명심. 5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4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76년생 새로운 만남을 경계. 8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41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53년생 겉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65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놀지 말고 일을 하라. 77년생 언제나 유비무환(有備無患). 89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서 나가라.



42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새로운 근심 발생. 54년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66년생 예쁜 자식으로 인해 어깨가 으쓱. 78년생 돈거래는 닭 잡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 될 것. 90년생 혼자서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애쓰지 마라.



43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5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른다. 67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삼가라. 79년생 누구든 인연을 맺는데 처음이 중요하다. 91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주의.



44년생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기도해볼라. 56년생 서남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을 것. 68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현실이다. 80년생 뒤늦게 게임에 빠져 자신의 할 일을 잊고 산다. 92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메모해둘 것.



45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57년생 겸손은 꽃이 피는 시기를 새가 와서 알려준다. 69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낭패를. 81년생 도깨비는 왜 붉은 팔죽을 싫어하는가. 9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46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다. 58년생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얻는 것이 인생사. 70년생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데. 82년생 애원권을 키우고 싶다면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지 고민하고 결정. 94년생 혼자서 하는 일로 즐겁다.



47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로. 59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금물. 71년생 바라던 선물이 들어온다. 83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서글픈 형국이지만. 95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밥맛도 좋다.



김상회의四季 우주와 나

하늘이 청명해지니 마음은 저 창공을 날아 시원해짐을 느낀다. 그런데 푸른 하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한 낮보다는 별들이 깨 박히듯 좋 좋히 빛나는 한밤중에야 저 너머 미지의 세계인 우주가 더 마음에 와서 닿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밤하늘에 수놓은 별을 보며 개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자기만의 별을 품곤 했던 것이 아닐까? 세계 종말론을 고했던 노스트라다무스나 동서양의 정신적 성인들은 우주와 소통하고 직관하던 별자리 천문을 세상의 신비를 품고 있는 원리로 이해했기에 이심팔수 별자리를 그리도 소중히 받아들였다. 태고의 탄생과 신비를 간직한 보고이자 열쇠로 인식했던 것이리라. 무릇 대자유를 만끽하고픈 존재들은 밤하늘과 가까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기 오염으로 대기가 탁해져 옛날만큼 육안으로 바라보는 심원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덜 오염된 깊은 산중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아직도 동심 때 바라보던 그 하늘만큼 경건한 동경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와 가까워진 시대지만 세상의 진리, 우주가 생성되고 변화하며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우리 한민족은 천부경에서 무극이 태극이라 하여 빈 가운데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태동하며, 차면 넘치고 다시 비게 되는 그 이치를 간파하고 있다. 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공자는 오늘 도를 깨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도를 깨친다는 것은 죽어서도 사는 이치이기 때문이리라. 필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사주명리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태양계 안에서 행성과 주고받는 에너지로 인해 생긴 사계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역시 우주의 축소판이기에 이를 기호화하여 적용하고 삶의 흐름에 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열대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5	8	4	3		2		
4					2	6		7
9								
6				4	7			
		2	9					8
								6
8	3	7						1
	7		2	6	8			3

		4				7		
1			7	2	8			
5								3
	1		8	4		2		
	2							9
		8		7	6			4
		5						7
				6	5	7		4
		2						9

9	8	6	8	9	2	7	2	1
1	7	2	6	5	2	8	9	8
9	2	8	1	8	7	9	6	2
8	9	5	2	1	6	2	7	8
2	6	7	9	8	2	1	9	
8	1	2	7	2	9	6	8	9
7	8	9	2	9	1	2	6	
2	9	9	2	6	1	8	8	7
6	2	1	8	7	8	9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보증제한 완화, 자율성 강화 등 소상공인·약자 규제 10건 폐지

서울시, 연초부터 규제철폐 가동
건설·경제·민생 등 63건 과제 발표
지역 보증제한 풀고 신규보증지원
소상공인 영업활동 다양성 부여 등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
하고 연초 본격적인 작업을 가동한 서울
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
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로 10건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
는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54호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추진
한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
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
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
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
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
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7종의 서
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
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에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의 개선내



오세훈 서울시장(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이 담겼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
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
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개선한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
조건도 개선(57호)된다. 앞으로는 운영
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
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
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
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이다.

규제철폐안 59호~61호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해 자
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서울시는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
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
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
제 개선'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
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
디어포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
박스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
고물 규제 완화'다.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
로 규제를 완화한다.

약자를 보듬는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
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
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49~77만원 지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
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
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
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
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이 기
준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
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
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수
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
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
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
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
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
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
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
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 '0명'

올해도 '의대증원' 갈등 계속 돼
일부 대학, 개강 4월 말로 미뤄

이번 학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
곳은 의대생이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양상이 올
해도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개강을
두 달 가량 미뤘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
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
국 40개 의대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
명이다.

10개 의대에선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4곳 중 1곳의
2025학번인 1학년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
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아무

도 없는 셈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의대에
서는 총 852명의 의대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대학별로 ▲강원대 97명
▲경북대 163명 ▲경상국립대 141명
▲부산대 162명 ▲전남대 2명 ▲충북
대 41명 등으로, 전북대와 제주대는 신
입생들이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
았다.

단, 대부분 대학이 3월 중 추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불참 인원이 줄
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일부 의대
에서는 개강을 전격 연기해 수강을 신
청하는 학생이 늘 수 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는 1~2학년 개강을 4
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
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이현진 기자

정원 못채운 대학 49곳... 82%가 지방대

추가모집에도 학생 총 1120명 미달
지방권 40곳, 경인권 8곳, 서울권 1곳

올해 대학 입시에서 49개 대학에서
추가모집 마감까지 학생 총 112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
원 학생 중 82%인 1050명은 지방대학
에서 발생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은 서
울 지역이 75.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
방권 대학은 9대 1에 그치며 지역 간 격
차가 두드러졌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지난달 28
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

한 대학은 전체 조사 대상 181곳 중
27%에 해당하는 49곳이었다.

2025학년도 마감직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49곳 중 경북지역이
4곳에서 215명을 선발하지 못해 미선
발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광주 5개대 205명 ▲전남 2개대 165
명 ▲전북 3개대 130명 ▲충북 5개대
118명 ▲부산 5개대 104명 ▲강원 3개
대 41명 ▲서울 1개대 34명 ▲경남 3
개대 34명 ▲경기 7개대 34명 ▲충남
4개대 16명 등이었다. 단, 세종, 울산
지역은 미충원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됐다.

추가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
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대 1이었고,
서울권 28개 대학이 75.5대 1로 가장 높
았다. 이어 경인권이 37개 대학에서
48.8대 1, 지방권 86개 대학 9.0대 1을
기록하며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 매
우 크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무전공 선
발 전형 신설, 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
도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대량
발생해 일부 학교들에서 정원을 못 채
운 대학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자원봉사 표어 공모전

교육자원봉사 가치 알릴 것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의 의
미와 가치를 담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한 줄 메시지를 찾기 위해 교
육자원봉사지원센터 표어(슬로건)를 오
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교육자원봉사자, 교직원, 학

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
며, 20자 이내의 표어(슬로건)와 100자
이내의 설명을 온라인 규약, 네이버폼
또는 이메일(newstartcenter@sen.go.
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작품
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홍보 및 캠페
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0 | 해질 / 18:29

3월 4일 (화)
음력 : 2월 5일

수도권 날씨
0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예측): 연천 -3/4, 동두천 -2/5, 파주 -4/4, 가평 -3/2, 서울 0/4, 양평 -2/4, 인천 0/4, 수원 0/3, 용인 0/3, 평택 -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우크라이나 정권교체 요구 시사...“전쟁 끝낼 지
도자 필요”
▲젤렌스키, ‘굴욕 회담’ 후 한발 물러서...“美와
광물협정 서명 준비” /사진 뉴시스

▲英총리,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구입비 16억파운드
제공하겠다”
▲이스라엘, 가자 구호품 반입 차단...1단계 휴전
연장 압박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사업비 갈등...산업
부 중재 사설까
▲트럼프, XRP·SOL·ADA 암호화폐 전략 비축
지시...비트코인은 빠져



네이버
물류시스템 개편
로켓배송 잡는다
니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확장
L2



차세대 모델부터 혁신기술까지... K-배터리 미래 한눈에

미리 보는 '인터배터리 2025'

배터리 업계가 총출동해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미니 한·중전,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회째인 '인터배터리 2025'에는 688개 배터리 기업이 2330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년보다 참가 규모가 20% 이상(전시면적 기준)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전시회의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K-배터리 기업들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책 마련이다.

◆K-배터리 초격차기술 한자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라 불리는 '46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46시리즈는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지름 21mm, 높이 70mm) 배터리 대비 에너지와 출력을 최소 5배 이상 높여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된다. 또한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미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엠펙터 모터스'의 태양광 모빌리티 차량도 전시한다.

삼성SDI는 최근 상품화 적용 검토를 완료한 '열 전파 차단(No-TP)' 기술을 선보인다. No-TP는 배터리 제품의 특정 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셀과 셀 사이에 설치한 안전 소재가 다른 셀로 열이 전파되



지난해 3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nterBattery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688개 기업 참여... 역대 최대규모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공개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현황 소개 SK온, 안전성 개선 '액침냉각기술'

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기술이다. 삼성SDI만의 독자적인 열전파 성능 예측 프로그램(TPC)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열전파 방지를 위한 최적의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ASB) 개발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SK온은 3대 배터리 폼팩터(형태)인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을 모두 전시할 예정

으로 원통형 실물 모형은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도 공개한다. 미드니켈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서 니켈 함량이 50~70%인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SK엔무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선보인다. 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급속충전 등 발열이 심한 상황에서 배터리 셀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열 폭주 발생을 막을 수 있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크게 낮아 전기차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미니 한·중전 예고...국가 협력 중요

이번 전시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다.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하는 해외기업은 172개로 지난해(115개)대비 49.5% 늘어났다.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이자 배터리 제조 2위인 중국 BYD,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인 EVE에너지가 처음으로 참여해 미니 한·중전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0위권 내 중국 업체 6곳(CATL·BYD·CALB·EVE·고선·선와다)의 합산 점유율은 74%로 지난 2023년(63%)대비 11% 증가했다.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빠른 확산을 무기로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도 BYD와 EVE는 LFP 배터리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이번

역대 최대 해외기업, 기관 참가 중국 BYD·EVE, LFP 배터리 선보 미국, 일본, 유럽 등 협력방안 모색 미래 기술, 캐즘 극복 솔루션 공개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우리나라와 배터리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 배터리 업체 주요 고객사 중 하나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지역 생산 및 공급망 다각화'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이나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배터리에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투자청이 참가하는 만큼 한·미 풀뿌리 배터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럽지역 배터리 단체 RECHARGE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네덜란드 정부, 독일 프라운호퍼 등이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EU의 배터리 산업 현황과 배터리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일본 배터리 단체 BASC도 인터배터리를 찾아한일 양국의 글로벌 배터리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시회 1일차인 5일에는 배터리 전후방 산업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5'가 준비되어 있고, 2일차에는 '미국 배터리 포럼' 3일차에는 '한·독 배터리 세미나'와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터배터리 2025는 배터리 캐즘, 중국저가물량 공세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극복 전략과 다가올 슈퍼사이클에 대비하는 K-배터리의 기술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metroseoul.co.kr



지난해 'InterBattery 2024'에 참석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온을 포함한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난해 'InterBattery 2024'에 참석한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각 기업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EPL 맨시티 감독 "FA컵 공인구, 좋지 않다" 불만 토로
▲빙속 정재원, 6차 월드컵 매스스타트 은메달... 시즌 첫 메달 수확 /사진 뉴시스

▲'물오른 타격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
▲'교체출전' 다저스 김혜성, 안타 없이 삼진 추가...배지환도 침묵

▲봉준호 감독 '미키17' 개봉 나흘만에 100만명 돌파
▲故서희원 유산, 법률에 따라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상속